



생각해봅시다



☞ 생각의 문

스티브 킹은 ‘유혹하는 글쓰기’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글을 쓸 때는 문을 닫아라. 글을 다듬을 때는 문을 열어라’

처음 글을 쓸 때는 자신의 감정에 몰입하여 글을 쓰지만, 글을 다듬을 때는 그 글이 남에게 읽히고 영향을 끼치는 글임을 생각하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글을 다듬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처음에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삽니다. 그러다가 차츰 가족을 생각하고 이웃과 사회를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숙 혹은 가치, 나아가 기쁨이나 행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좋은생각/정용철의 초록이야기 >

공단 임직원 경조사

● 결혼을 축하합니다.

- 부산지부 김규태 주임 (2008. 11. 15)
- 인천지부 김자훈 대리 와 서울지부 이진미 주임 (2008. 11. 23)
- 기획홍보팀 황주원 대리 (2008. 11. 16)
- 보령지부 이수진 주임 (2008. 11. 30)
- 총무회계팀 이승수 과장 (2008. 11. 22)
- 강원지부 박중명 부장 장녀 (2008. 12. 6)
- 완도지부 임용길 부장 장남 (2008. 11. 22)
- 인천지부 윤완용 부장 장남 (2008. 11. 23)



알리는 말씀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식은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단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발간하는 홍보지입니다. 공단소식 및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정보, 모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글을 게재코자 하오니 다양한 분야의 원고를 보내 주십시오.

연락처 → TEL 032-260-2226 / FAX 032-260-2275 / E-MAIL vicadpr@kst.or.kr